⑦ 연합뉴스 │ < ▷ 대통령적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 >



Q

뉴스홈 | 최신기사

두산 미란다, 코로나19 확진돼 입국 연기...2군 2명도 양성

송고시간 | 2022-02-04 14:17































입국이 미뤄진 미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2021년 KBO리그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아리엘 미란다(33·두산 베어스)가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국이 연기됐다.

두산은 4일 "미란다가 미국 출국 전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았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2월 3일 양성 판정을 받은 미란다는 2월 5일에 재검사를 한다.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입국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란다는 1월 30일 입국 예정이었지만, 개인 훈련을 하던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체육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1월 29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닷새 동안 격리를 한 뒤 PCR 검사를 했는데 양성 판정이 나와 다시 격리됐 다.



2월 5일 다시 검사해 음성 판정이 나오면, 미란다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

2월 3일부터 이천에서 스프링캠프를 차린 두산 1군 선수단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잠실에서 훈련하는 퓨처스(2군)팀에서 확진자 2명이 나 왔다.

두산은 2월 2일과 3일, 1·2군 선수단 전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 검사(자가진단키트)를 했다. 이때 양성 반응이 나온 선수 2명이 PCR 검사를 받았고, PCR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왔다.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확진 선수 2명과 밀접접촉한 퓨처스팀 선수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7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jiks79@yna.co.kr

관련기사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감독과 배터리 코치 코로나19 확진

삼성 구자욱, 비 FA 최고 '5년 120억원' 장기계약

kt 강백호, 5억5천만원 계약...이정후와 5년차 최고연봉 타이

'LG맨' 박해민 라이벌은 강민호..."타석서 무슨 말을 할까 걱정"

프로야구 시범경기 3월 12일 개막...팀당 16경기 편성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04 14:17 송고

#미란다 #코로나19 #두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나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문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뭐하고 놀까? ## 👺 →

힐 예정"

5

⊕ 40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44 찰에 고발 2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 66 안 맞아"(종합)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61 대병원 자원봉사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동재개 예열?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유튜브채널

















출판물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뉴스+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클럽 #흥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